

[강연]

#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

서울연구원  
편집출간팀 정리 및 요약

본 자료는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378호(2016.3.7.)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


뉴욕시,  
**빌 드 블라시오**  
(Bill de Blasio) 시장

자료 [www1.nyc.gov](http://www1.nyc.gov)

미국 뉴욕시는 2016년 “이웃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뉴욕시”라는 부제로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신년사 발표

## ○ 퇴직 보장

- 미국 최초로 도시정부가 지원하는 민간부문 퇴직자를 위한 연금 형태의 저축프로그램 시행 예정
- 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이후 소득 보장 예정

## ○ Far Rockaway 지역 재생

- 다운타운의 Far Rockaway 지역 재생사업에 9,100만 달러(약 1,093억 원)를 투자 예정
- 이 사업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주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

## ○ 건강 격차 해소

-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Health Action Center 설립
- 뉴욕시 소유 건물들을 활용해 시민의 건강 격차 해소 위한 서비스 시행

## ○ LinkNYC

- 시민들이 어디서나 도시행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시 곳곳에 태블릿과 전자기기 무료충전소 설치 및 무료 와이파이 지역(Wi-Fi Zone) 확대

## ○ 생활 편의 향상

- 350개의 버스정거장에 버스 카운트다운 시계(Bus Countdown Clock) 설치
-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마련
- Clean NYC 정책: 낙서(graffiti) 제거, 휴일 쓰레기 처리 서비스 강화 등

## ○ 총기사용의 법적 규제 및 억제

### 참고자료

- <https://medium.com/@nycgov/one-nyc-working-for-our-neighborhoods-35ad77dd7780>
- 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state-of-our-city-2016-future-plans.page>
- 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state-of-our-city-2016-accomplishments.page>



뮌헨市  
**디터 라이터**  
**(Dieter Reiter) 시장**

자료 <http://www.muenchen.de/>

**2015년 12월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市 디터 라이터 시장은 2016년 정책 수행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**

○ 주택 분야

- ‘제6기 뮌헨 주택(2011~2016년) 프로그램’을 2016년 12월까지 시행 예정
  - 연말 만료되는 뮌헨 주택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 중
- 2015년 12월 공기업인 뮌헨 공익주택 유한회사(GWG München)가 사업시행자인 임대주택 공급사업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
- 각 지구의 주택건설조합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주거 공급
- 2030년의 뮌헨을 위한 미래도시개발계획 수립 작업 진행

○ 교통 분야

- 2015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구시가지 터널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
- 바이에른주 정부의 주도 아래 광역전철 제2통근터널 사업도 함께 추진 중
- 일부 노면전차의 노선 확대
- 도심 지역의 버스 노선 집중 및 증편
- 자전거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전용 주차장 확충
- 공원 내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건설
- 카 셰어링(Car Sharing) 프로그램 확대 시행

○ 교육 분야

- ‘학교 및 유치원 건설 실행계획 2020(Aktionsprogramm Schule-und Kita-Bau 2020)’을 통한 학교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
  - 2월 중 시의회에 신규사업안 제출 예정
  - 28개 학교에서의 부속건물 건립사업 별도 추진
- ‘다년간 투자 프로그램(MIP) 2015~2019’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계, 증축 및 개축, 유지를 위한 비용 조달
  - 학교기관: 3억 3,000만 유로(약 4,517억 원) 지원
  - 유치원·보육원: 9,760만 유로(약 1,337억 원) 지원
  - 체육시설 투자: 2,140만 유로(약 293억 원) 지원
- 학교 내 인터넷 연결망 확충
-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 확대

○ 체육 분야

- 뮌헨지역 내 구별 체육시설 신축 및 기존시설의 현대화 추진
- 유치원 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 확대 시행
-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

○ 도시공간, 도로, 광장의 개발

- 2013년 시의회가 의결한 대형시장 건물신축사업을 계속 추진
- 보겐하우젠 지역 내 시립 공공병원의 확장·보수공사 진행
- 하수도 정비 및 소방서 신축·개축 등

○ 문화 분야

- 새 뮌헨 시민극장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2020년에 완공할 계획
- 뮌헨 시립도서관 및 주민학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

및 프로그램 제공 예정

- 2016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제 미술전 '뮌헨 비엔날레' 개최 예정
- '예술지구(Kreativquartier) 사업'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위한 공동생활 및 작업 공간 제공
- 지역 내 광장 구조변경, 하수도 정비사업, 헬라브룬 동물원의 코끼리 막사 신축 등

### ○ 사회 정책

- 뮌헨 직업센터 내 장기 실업자와 시리아 난민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
  - 실직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실업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 강화
  - 현재 2,500여 명의 난민이 직업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, 2016년 5,000여 명의 난민들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
- 구직자와 구인자 간 연결을 위한 '제3노동시장' 개설 및 운영
- 노인 서비스 센터(Alten-und Service-Zentren: ASZ)를 6개 신설하여 총 36개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
- 청소년 망명자 센터(Young Refugee Center: YRC) 임시설치
- 청소년 난민을 위한 생활보호·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

### ○ 환경, 기후 보호 및 보건

-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한 탄소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행
  - 전기자동차 산업 촉진 프로그램(E-Allianz Program)의 추진을 통한 탄소 감축
  - 뮌헨 교통조합과 공동으로 전기 버스를 시범 운행
-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한 새로운 환경 전략 수립
- 각종 보건정책 및 동물보호 정책을 시행할 예정

### ○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

- 산업연수 및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: 600~700개의 직업교육 관련 일자리 확대
- 인종차별이 없는 취업기회 확대 제공
- 대학생을 위한 실습교육 과정 확대
- 지역 내 대학들과 취업프로그램 공동진행
- 미래형 직업 육성

#### 참고자료

- <http://landeshauptstadtmuemchen.blogspot.de/2015/12/jahresvorschau-2016.html>



베를린시

**미하엘 뮐러  
(Michael Müller) 시장**

자료 <http://www.michael-mueller-spd.de/biographie/>

**독일 베를린시는 2016년 '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 구축'을 목표로 도시발전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**

### ○ 주택건설 및 저렴한 집세의 주택 제공

- 올해 건설 예정인 시 소유의 주택조합에서 평방미터당 6.50유로(약 8,600원)의 저렴한 가격에 시민에게 주택 공급 예정
  - 베를린시의 다른 주택조합들도 신규주택 1만 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
  - 2016년 토지이용계획 중 16개 항목을 수정해 1만 4,000 호의 신규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할 계획

### ○ 난민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그램

- 난민을 위한 주택을 시내 10곳에 3,000호 건설

### ○ 테겔공항 부지 개발

- 올해 1월 테겔공항의 부지<sup>1</sup>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공모전 실시

- 5천 호의 신규주택 건설, 상업 및 서비스산업 유치
- 6개의 유치원과 1개의 초등학교, 1개의 상급학교 설립 예정
- 공공녹지 조성

○ 원도시 조성사업

- 몰켄마르크트 지구를 옛 몰켄 시장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주택·일자리·숙식·관광 및 문화시설을 갖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을 가을에 확정할 예정
- 원도시 조성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행사 및 전시회 개최

○ 자전거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

- 자전거교통 인프라 개선 및 보수작업에 1,530만 유로(약 201억 원) 지원
- 도로보수지원금으로 시내 자전거 도로선 및 보호선 수리

○ 녹지 확대

- 베를린 도시 전체가 녹지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녹지 확대
  - 마우어파크(Mauerpark) 면적을 8헥타르에서 13헥타르로 확장
  - 도심공원 내 벼룩시장 장터 유지에 590만 유로(약 77억 원) 투자 예정
- 베를린시 병목공원(Flaschenhalspark)과 기념비광장을 지나는 원거리 자전거도로 개선
- 요크다리(Yorckbrücken) 개선작업을 통해 배리어프리(barrier-free) 환경 조성
- 2017년 베를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

참고자료

- <http://www.berlin.de/rbmskzl/aktuelles/pressemitteilungen/2015/pressemitteilung.428913.php>
- [http://www.stadtentwicklung.berlin.de/aktuell/pressebox/archiv\\_volltext.shtml?arch\\_1601/nachricht5901.html](http://www.stadtentwicklung.berlin.de/aktuell/pressebox/archiv_volltext.shtml?arch_1601/nachricht5901.html)



원헌시  
디터 라이터  
(Dieter Reiter) 시장

자료 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alcaldessa>

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(Ada Colau)는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(PAM 2016~2019)을 바탕으로 한 2016년 중점 계획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힘

○ 불평등과의 싸움

- 최근 수년간 도시 내 불평등 문제의 심화
  - 저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20%에서 40%로 증가
  - 부유층의 거주지역인 Pedralbes 지역과 빈곤층의 거주지역인 Raval 지역 간 주민들의 평균 수명 차이는 6년
- 지역별 개발계획(Pla de Barris)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사회결속력 강화로 도시 내 불평등 문제 해결 시도
  -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(PAM 2016~2019) 중 사회부문에서 예산 1억 5,000만 유로(약 2,000억 원)를 저소득층 지역에 투자할 예정

○ 새로운 경제 모델

- 도시경제 모델의 다양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, 연구와 혁신을 위한 정책 등 시행 예정
-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

참고자료

- [http://eldigital.barcelona.cat/colau-anuncia-la-posada-en-marxa-del-pla-de-barris-de-barcelona\\_286129.html](http://eldigital.barcelona.cat/colau-anuncia-la-posada-en-marxa-del-pla-de-barris-de-barcelona_286129.html)

1 2018년부터 신공항 이전으로 테겔공항 지구는 비워지게 됨.



도쿄都  
**마스조에 요이치**  
(舂添要一) 도지사

자료 <http://www.koho.metro.tokyo.jp>

2016년 1월 도쿄都 마스조에 요이치 도지사는 신년사 발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'경쟁력 있는 도쿄의 미래 구축과 이를 위한 도민과의 협력을 강조

#### ○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'도쿄 그랜드 디자인'

- 도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넓은 시야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
- 2015년부터 2040년대 도쿄의 모습을 구상한 '도쿄 그랜드 디자인' 사업 검토 중

#### ○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

- 도쿄의 발전을 위한 각 국과 부서 간 정보 및 아이디어 공유는 중요
- 도민과의 협력을 통한 도정(都政)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공개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 필요
- 오픈데이터 활용뿐 아니라 정보관리의 보안문제도 중요

#### ○ 현장중심 정책의 중요성

- 현장 관련 정보와 현장문제 해결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지사에게 즉시 접수 가능한 환경 구축
- 도시외교, 위기관리, 국제금융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도 전 직원의 능력 개발 및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 필요

#### ○ 일과 생활의 균형

- 여성근로자가 결혼 및 육아에 어려움이 없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

#### ○ 2019년 럭비 월드컵 및 2020년 도쿄올림픽 대회의

#### 성공적인 개최

- 세계의 여러 국가와 경쟁을 통한 일본의 발전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목표로 국가와 조직위원회, 전국 자치단체, 민간단체 간의 공동협력이 중요

#### 참고자료

- <http://www.metro.tokyo.jp/GOVERNOR/ACTIVITY/160104.htm>



요코하마市  
**하야시 후미코**  
(林文子) 시장

자료 <http://www.city.yokohama.lg.jp/>

요코하마市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2016년 1월 6일 신년사 발표에서 2016년은 요코하마시의 '중기 4개년 계획'을 시행한 지 3년째에 접어드는 해로 요코하마시의 미래 구축에 중요한 해임을 강조함. 올해 수행 과제로 경제활성화, 마을만들기, 여성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움

#### ○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

- 시내 중소기업과 상가 지원 및 새로운 기업 유치
- 요코하마시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시도

#### ○ 마을만들기 사업

-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을 목표로 요코하마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
- 야마시타 부두 재개발, 미나토 미라이@20 도시 지역에서의 MICE 시설 정비, 신(新) 시청사 정비와 함께 관내·관외 지역의 활성화도 꾸준히 진행

#### ○ 재해에 대한 대비

- '시민 방재 센터(市民防災センター)' 활용을 통한 지역방재 역량 강화
- 지진 및 화재에 대한 대비 강화

- 여성 기업 지원 및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
  -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
  -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방식 개혁 추진
- 어린이 및 육아 지원
  - 대기아동 제로를 목표로 한 ‘보육소 대기아동 대책’을 지속적으로 추진
  - 방과 후 아동 대책에도 집중하여 종합적인 어린이·육아지원을 계속할 예정
-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
  - 요코하마 워킹포인트 사업(よこはまウォーキングポイント事業)을 중심으로 한 건강만들기(健康づくり)
  - 의료와 간호를 잇는 재택의료 제휴 거점 개설
  - 의료·간호·생활지원 등을 종합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
- 문화 예술 지원
  -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때 요코하마시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마을의 활기 중요성 강조

참고자료

- <http://www.city.yokohama.lg.jp/ex/mayor/interview/2015/20160106nentosuyokan.html>



상하이시  
**양송**  
(杨雄) 시장

자료 <http://www.shanghai.gov.cn/>

중국 상하이 양송 시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 2016년은 중국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인 ‘13차 5개년 계획(2016~2020년)’이 시작되는 해임을 알리며 2016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

- 상하이시는 중국정부의 ‘13차 5개년 계획(2016~2020년)’에 기반을 두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
  - 개혁을 위한 결속, 개방 확대,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
- 환경보호와 생태문명 건설
- 환경 질량(环境质量)의 개선
  - ‘12차 5개년 계획(2011~2015년)’에 의한 환경정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, ‘13차 5개년 계획’이 시작되면서 환경 질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
- 연금, 의료, 교육, 교통분야 등 다방면으로 개선 노력
  - 모든 시민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에 힘쓸 예정

참고자료

- <http://news.163.com/16/0101/00/BC71416A00014AEE.html>



파리시  
**안 이달고**  
(Anne Hidalgo) 시장

자료 <https://fr.wikipedia.org>

2016년 1월 6일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시의회에서 신년사와 함께 2016년 파리시정 중점사업을 소개

- 도시 치안
  - 꾸준한 테러 대비
    - 작년 파리시 테러에 대비한 경계태세 강화, 프랑스 정부의 상티넬 작전에 따른 경찰인력 보충
    - 학교와 어린이집 보호 강화
    - 경찰관과 소방관 장비 지원자금 확충



-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일관성 개선
  - 165곳에 신규 보안 카메라 설치
  - 일드프랑스 지역 내 1만 5천 개의 보안 카메라 단일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 구축
- 치안 관련 IT 기술 혁신
  - 긴급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와 대중 정보 관리대책 마련
  - 파리시 인큐베이터 센터 내 치안 관련 기술혁신 플랫폼 개설
- 민주주의와 시민성
  - ‘시민카드’ 출시
    - 국적·신분과 상관없이, 7세 이상인 파리 거주자는 신청만 하면 발급 가능
    - ‘시민카드’ 소유자는 시의회 참관이나 시민대학 강좌 수강 등 혜택 가능
  - ‘민주주의 토론의 밤’
    - 4월 개최 예정인 민주주의 밤샘 토론회에서 대학교수와 대학생, 시민단체 간 다양한 의견과 세계관 공유
  - 참여 예산제
    - 참여 예산제에 시예산 5억 유로(약 6,590억 원) 배정, 예산 사용처는 시민투표로 결정
    - 이 중 3억 유로는 빈곤지역 프로젝트 자금을 배당하여 실질적 평등 담보
    - 1억 유로는 학교 관련 프로젝트에 배당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- 문화 분야
  -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신규 문화시설 개장
    - 파리시 레알(Les Halles) 지구 재정비 및 음악학교·도서관·합합 연습장·아마추어 예술공연장 등 다양한 신규 문화시설 개장
  - 파리시와 자매도시인 뉴욕시와 문화교류 확대
  - 희극배우 콜뤼슈(Coluche)의 사후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 마련
  - 2016년 2월 25일 베르탱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예정
  - 1차 세계대전 전사자 사이버 플랫폼 개장
  - 프랑스 공화국을 지킨 시민을 추모하는 기념물 마련
- 교육 및 보육 분야
  - 교육 지원
    - 중학교 3학년 1,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, 연대경제,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기회 제공
    - 직업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중학교 3학년 중 성적이 좋지 않은 2,000명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담당할 대학생 선발
    - 청소년 1,000명에게 아동 레크레이션 활동가(BAFA Citoyens) 과정 교육 지원
    - 파리 12구에 국립 신(新) 소르본 대학교 제2캠퍼스 건축
  - 보육 지원
    - 시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5,000명으로 확충
    - 시에서 보육교사 120명을 추가 고용
- 고용과 혁신
  - 파리시와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컨소시엄을 통한 일자리 창출
    - 파리시와 위성도시의 빈곤지역을 대상으로,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투자 예정
  - ‘파리 코드(Paris Code)’와 같은 IT 개발자 양성 정책 시행
  - 빈곤지역 내 소형 고용상담센터 설치
- 취약계층 지원
  - 지속적인 시리아 난민 수용

- 2016년 1월부터 긴급 난민수용센터 2곳 개설
- 자국에서 언론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 언론 관련자에게 스튜디오 제공
- 노숙자 쉼터 인원은 외국인 난민 수용과 별개로 유지 예정

○ 주택 및 환경 분야

- 신규 주택건설에 대규모 투자
  - 2016년 신규 주택 1만 호 공급 및 사회적 주택 분양
- 사회적 주택단지 내 관리서비스 개선
  - 임대주택공사에서 공청회를 마련하여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, 구체적인 관리방식 개선안을 준비할 예정
- 에너지 저효율 건물 1,000호 개보수 지원
- 가구별 녹색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
  -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집해 메탄화 사업 방식 연구
- 보행자 거리 확대
- 공용 녹지공간 확대
-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한 에너지 절약도시로의 전환 노력

○ 스포츠 분야

-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 및 하계올림픽 개최지 입후보
- 스포츠 분야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센터 내 점프대(Tremplin) 개설
- 파리지 체육시설 12곳 운영을 위한 사업 공모
- 스포츠클럽 및 단체의 체육시설 이용절차 단순화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
- 신규수영장 4개 설립 및 기존 수영장 개보수 작업

참고자료

- 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les-grandes-mesures-annoncees-pour-2016-3232>



서울시  
박원순 시장

자료 <https://twitter.com/wonsoonpark>

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2016년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제일주의, 성장-일자리-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, 일자리 특별시로의 발돋움, 또 다른 성장 동력인 복지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발표

○ 민생 제일주의

- 과거의 '추수형 경제'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'혁신에 기반한 경제' '혁신주도의 성장' 체제로 전환하여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
- 성장-일자리-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

○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

- 마곡, 양재·우면, 홍릉, 개포, G밸리,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, 창동·상계,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등을 의료·바이오, IT, R&D, 문화콘텐츠 등 첨단융복합산업, 유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
  - 3조원이 투자된 LG SCIENCE PARK을 중심으로 마곡을 대한민국 최고, 최대의 R&D지구로 조성 예정. 2018년 완공시 12만 명 이상의 일자리 생성 전망
  - 양재·우면지역의 기존 R&D시설을 확장, 파이시티 서울시 양곡창고 일대 부지를 R&D타운으로 전환
  - 2017년까지 홍릉 바이오·의료 클러스터 조성
  - 2016년 7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, 아이디어와 솔루션 중심의 ICT 창업 전초기지로 육성
  - G밸리를 문화, 여가, 주거, 복지 등을 갖춘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.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



기술(ICT), 전기차 등 유망 분야가 클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

- 코엑스~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, MICE, 스포츠, 문화·엔터테인먼트 등 4대 산업이 어우러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육성, 27년간 경제파급 효과 총 264조 8,000억원, 고용창출 효과 121만 5,000명 예상
- 창동·상계 지역을 수도권 동북부 320만 명을 위한 문화경제 허브로 육성하여, 8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도권 균형발전 도모
- 남산의 애니메이션타운 확대 및 국제화
- 동대문 한방, 종로 주얼리, 성수 수제화 등 서울 도심 특화산업 부흥
- 2018년을 목표로 한 관광객 2,000만시대가 현실화, 세계 MICE 3대 도시로 도약
  - 2016년을 '서울관광 혁신의 원년'으로 삼아 서울관광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 체질화
  - 서울관광 3불(불편, 불만, 불신)을 혁신하는 '관광객 불만제로 프로젝트'를 통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관광여건을 만들기
  - 서울관광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강화
  - MICE 산업 육성 등 서울관광의 근본적인 체질개선

#### ○ 일자리 특별시로의 발돋움

- 민간기업, 산업계, 노동계, 대학계 등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 마련
- '노동존중특별시, 서울' 확고하게 자리매김
- '근로자 권익보호', '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' 등 시민의 기본적인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
-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,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17년까지 100% 완료
-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'경제민주화 도시, 서울' 추진

-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 자본에 돌아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
-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
-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
-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보호
-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상생협약을 지원
- 서민금융도 확대 지원

#### ○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복지 강화

- '전생애에 걸친 세대별 맞춤형'을 완성
- 영유아, 청소년, 어르신, 여성, 장애인, 위기가정 등을 위한 복지를 넘어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복지 강화
- 서울시의 가장 많은 인구집단인 50+세대 214만 명을 위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, 재기할 수 있도록 재취업교육과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단과 캠퍼스를 설립·확대
- 청년들을 위한 '서울청년보장플랜'을 가동해 청년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회참여활동비 지원
- 복지전달체계의 혁신: 2015년 80개동으로 시작된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는 2016년 282개동, 2017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

#### ○ 구청의 자주재정권 확대

-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.1%에서 100% 수준까지 지원

#### 참고자료

- <http://opengov.seoul.go.kr/issue/7147724>